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빛과 어둠의 세계에서

세상의 절반은 빛이요 절반은 어둠이다. 하루의 절반이 낮이요, 절반이 밤이기 때문이다. 하여, 영원한 기쁨이 없듯이 영원한 슬픔도 없는 것이다.

사람은 자연의 일부이다. 하여, 한의학에서 사람의 체질을 말할 때에도 음(陰)과 양(陽)으로 나누어 태음인(太陰人), 소음인(少陰人)과 태양인(太陽人), 소양인(少陽人)으로 나뉘어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장점만 있는 사람이 없고 단점만 지닌 사람도 없을 터이다.

절반이 빛으로 충만한 행복이 있는가하면 절반이 어둠으로 가득한 불행이 자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흔히 이분법적인 옳고 그름으로 나누어 진보와 보수로 진영의 논리를 펴는 세상이지만 영원한 진보도 보수도 있을 수 없을 터이다. 나이테 둘레에 따라 그 색깔이 바뀌어 가고 지향하는 목표물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조직은 필요조건에 의해 모일 수도 흩어질 수도 있는 모래성인 것이다.

학문 또한 깊이와 넓이에 따라 측정의 눈높이가 달라질 수 있어 영원한 정답은 없을 터이다. 사상(思想)과 철학, 종교 신앙의 신념에 이르기까지 마음의 키 높이에 따라 계절이 바뀌어가듯 생각의 흐름이 윤회를 거듭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기 주장과 철통 이념이 세월의 무게에 따라 멈춤이 있을 수 있고 교정을 필요로 하는 방향 바꿈의 변화를 겪을 수 있는 것이다.

나이에 따라 키 높이에 따라 입맛이 변하고 가치기준이 바뀌며 생활상식으로 일궈낸 판단 기준이 혼란을 불러들일 수도 있는 것이다.

만화책을 즐겨보던 아이가 연애소설로 순수문예에서 역사서적으로 끝내는 철학과 종교서적에 이르는 독서취향의 사닥다리는 하늘까지 맞닿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쉽게 판단해 자기만의 눈높이로 타인(他人)을, 사회를, 세상을 제단하지 말 일이다. 내가 이럴 수 있으면 다른 사람도 이럴 수 있고 내가 저럴 수 있으면 다른 사람도 저럴 수 있는 것이다.

삶에는 정답이 정해져있지 않듯 사람의 행동 반경에도 의미 부여를 하고 보면 죽일 놈이 살릴 놈이 되는 격이다. 하나의 형사 사건을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로 엮어 신문기사로 옮겨 왔다면 그 사건의 주인공은 돌 던짐과 몽둥이를 맞아야할 어둠의 자식이 된다.

그러나 같은 사건을 어느 소설가가 사건 전후의 숨은 사연들을 꺼내들며 고뇌에 찬 현실 생활의 주인공의 삶과 정신세계를 조명해 옮긴다면 그 형사사건의 주인공은 죽일 놈에서 구제 되어야할 당위성으로 만인의 응원과 변호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섣불리 흑백논리에 가담하거나 선입견을 앞세워 사람의 차별화에 끼어들지 말 일이다. 내가 그 누구의 것이 영원히 될 수 없듯 그 누구도 영원히 나의 것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옳고 바름만을 실천하는 자 있을 수 없고 나쁨과 어긋남만을 행동하는 자 없는 것이다.

지킬과 하이드가 둘이 아닌 하나이듯이 투사와 보살은 둘이 아닌 한 몸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천사와 악마 또한 나의 정신세계에서 빛과 어둠으로 바뀌며 나타나는 한시적 현상일 뿐이다. 영원한 천사, 영원한 악마도 있을 수 없는 것이다. 투사가 보살이요 보살이 투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섭수·절복은 둘이 아닌 하나
내 기준으로 세상 제단말라

〈열반경〉에는 섭수자비(攝受慈悲)와 절복자비(折伏慈悲)가 등장한다. 끊임없이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어머니의 사랑이 섭수자비라면 끊고 맺는, 열고 닫음을 익혀 실천하는 아버지의 교육이 절복자비인 것이다. 그러나 이 또한 어머니와 아버지가 둘이 아닌 하나의 부모사랑 이듯이 섭수의 사랑과 절복의 교육은 둘이 아닌 하나인 것이다.

지혜가 많은 자는 복이 조금 부족할 수 있고 복이 많은 자는 지혜가 조금 부족할 수 있을 터이다. 영원한 승리자도 패배자도 없는 것이다.

부정적인 생각은 어둠을 몰고 온다. 긍정적인 생각은 희망과 빛을 몰고 온다. 어차피 인생의 삶에는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는 법이다. 너와 나, 우리 모두는 착각으로 눈높이만큼 세상을 끌어들이며 사는 것이다. 우리 앞에 문(門)은 항시 열려있다. 빛의 세상에서 후회 없이 신바람 나게 살 일이다.

선의 알음아리를 쉽게 전하다



지안 스님의 〈禪話의 향기〉
조계종 고시위원장

"지극한 성인의 명맥(命脈), 역대 조사들의 대기(大機), 뼈를 바꾸어 놓는 신령스런 처방(處方), 정신을 기르는 오묘한 술법(術法)이여!"

보조(普照) 선사가 쓴 〈벽암록(碧巖錄)〉 서문 첫 부분에 나오는 이 말은 벽암록을 편찬의 저본이 된 〈송고백칙(頌古百則)〉을 지은 설두 중현 (雪竇重顯:980~1052) 선사와 〈벽암록〉을 지은 원오 극근(圓悟克勤:1063~1135) 선사를 찬탄한 말이다.

종문(宗門) 제1서로 평가된 〈벽암록〉은 특이한 사연을 가지고 있다.

원래 이 책은 〈경덕전등록〉의 1700공안과 〈조주어록〉, 〈운문광록〉 등에서 100칙을 선택하여 그에 대한 송(頌)을 붙인 〈송고백칙〉을 원오 극근 선사가 각 칙(則)에 대한 짧은 서론 형식의 수시(垂示), 본칙과 송에 대한 해설 형식의 평창(評唱), 그리고 본칙의 각 구절과 원오 선사가 붙인 송의 각 구절을 평가하는 형식으로 붙인 착어(着語) 등 세 가지를 부가하여 1125년에 완성된 책이었다.

'벽암'이라는 말은 원오 선사가 협산(夾山)의 영천원(靈泉院)에서 평창을 지을 당시 방장실에 걸려 있던 벽암이란 편액에서 따 붙인 것이다. 이 두 글자는 협산의 개산조인 협산선회(夾山善會)가 남긴 오도송 구절에서 차용한 말이다.

"원숭이는 새끼를 안고 푸른 산봉우리 뒤로 돌아가고, 새는 꽃을 물어다 푸른 바위 앞에 떨어뜨리네. (猿抱兒歸靑;後 鳥啣花落碧巖前)"의 뒷구 벽암이란 말을 따서 책 이름을 삼은 것이다.

그런데 원오 선사의 제자인 대혜종고(大慧宗 ₱1089~1163) 선사가 당시의 학인들 중 이 책을 통해 선화(禪話)만 익혀 알음아리를 늘리기만 하고 실제적인 수행을 게을리 하는 자가 많은 폐단을 보고, 불립문자 교외별전(不立文字 敎外別傳)인 선의 종지를 다시 천명하기 위하여 어느 날 대중 앞에서 불태워 버렸다. 그리하여 이 책은 200여 년 동안 총림에서 자취를 감추어 사라졌었다.

그러다가 원나라 때에 와서 장명원이란 거사가 여러 절에 비장되어 있던 것을 다시 모아 1300년 전후에 〈벽암록〉을 중간하게 되었다. 이로부터 이 책이 세상에 널리 유통하게 되었다.

이 책은 특히 간화선풍을 드날린 임제종에서 특별히 중시 되어 간화선 수행의 길잡이 역할을 하게 되었다.

묵조선풍을 유지한 조동종의 〈종용록(從容錄)〉 더불어 쌍벽을 이룬 대표적이 선서(禪書)였다. 매 권마다 10칙씩 10권으로 엮었다. 한 칙의 내용을 소개하면 제 3칙에 '일면불 월면불' 이야기가 있다.

마조 스님께서 노환으로 몸이 편치 않았다. 원주가 걱정이 되어 스님을 찾아뵙고 여쭈었다.

"스님 요즈음 몸이 어떠십니까?"

스님이 답하기를 "해도 부처고 달도 부처니라.(日面佛 月面佛)"

이 짧은 물음과 대답을 두고 〈평창〉에서는 이어 말했다.

"만약 마조 스님께서 본분사(本分事)의 위치에서 원주를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불법이 빛을 발할 수 있으리오. 이 공안(公案)이 뜻하는 바를 알았다면 붉은 하늘(丹宵)에 혼자 거닐 수 있겠지만 만약 이 공안의 떨어지는 곳(落處)을 모른다면 그렁저렁 마른 나무 바위 앞에서 길을 잃고 말 것이다."

"만약 본분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이러한 경지에 이르러 모름지기 농부의 소를 몰고 달아나고, 배고픈 사람이 밥을 빼앗아 먹는 수단이 있어야만 바야흐로 마조 스님의 사람 가르치는 방법을 알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마조 스님이 원주를 잘 제접(提接)했다' 하나 또한 아무 관계가 없다. 다만 대중들이 잘못 알고 자기주장을 내세워 눈을 부릅뜨고 말하되 '이 가운데 있으니 왼쪽 눈은 일면(日面)이요, 오른쪽 눈은 월면(月面)이다' 하니 무슨 관계가 있으리오. 당나귀 띠 해가 돌아와도 꿈에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마조스님이 이렇게 말한 진의는 어디에 있을까? 원숭이가 물속의 달그림자를 잡으려는 것과 같이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허망한 업보 벗어나는 길, 無心 無念



진원 스님의 깨달음 찾는 〈금강경〉
⑲ 의법출생분

須菩提 於意云何. 若人滿三千大千世界七寶 以用布施 是人所得福德 寧爲多
(수보리 어의운하. 약인만삼천대천세계칠보 이용보시 즉시소득복덕 영위다)
不. 須菩提言 甚多 世尊. 何以故 是福德 卽非福德性 是故 如來說 福德多.
(부. 수보리언 심다 세존. 하이고 시복덕 즉비복덕성 시고 여래설 복덕다.)
若復有人 於此經中受持 乃至 四句偈等 爲他人說 其福勝彼 何以故 須菩提 一
(약부유인 어차경중수지 내지 사구게등 위타인설 기복승피 하이고 수보리 일)
切諸佛 及 諸佛阿 耨多羅三 三菩提法 皆從此經出. 須菩提 所謂佛法者 卽非
(체제불 급 제불아뇩다라삼먁삼보리법 개종차경출. 수보리 소위불법자 즉비)
佛法
(불법)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세계에 칠보를 가득 채워서 널리 보시했다면, 이 사람이 얻는 복덕은 얼마나 많겠느냐."

수보리가 사뢰었다. "아주 많사옵니다. 세존이시어, 왜냐 하오면 이 복덕은 곧 복덕의 성품이 아니기 때문이오니 그래서 여래께서 복덕이 많다고 하신 것이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경 가운데 네 글귀라도 받아 지니고 남을 위해 말해준다면 그 복이 저 복보다 뛰어나리라. 왜냐하면 수보리야, 모든 부처와 모든 부처의 아뇩다라삼먁삼보리법이 다 이 경으로부터 나온 때문이니라. 수보리야, 이른바 불법이란 곧 불법이 아니니라."

안찰사(按察使)의 직책을 지닌 관리가 마조 선사에게 물었습니다. 술이나 고기를 입에 대는 것이 옳습니까, 안 대는 것이 옳습니까?

선사가 말했습니다. "입에 대는 것은 일한 대가를 즐기는 것이고, 입에 대지 않는 것은 복을 짓는 일이요!"

술과 고기를 입에 대는 것은 속인인 당신에게는 장애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입에 대지 않으면 복을 짓는다는 뜻입니다. 욕계, 색계, 무색계의 삼계는 모두 분별망념에 의한 과보(果報)의 세계이고 업보의 세계입니다. 업보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을 느끼고, 움직이고, 생각하는 일체 행위와 그 대상이 업보입니다.

또한 남이 없으므로 내가 없고 내가 없으므로 남이 없으며, 불행이 없으므로 행복이 없고 행복이 없으므로 불행이 없으며, 싫어함과 좋아함, 6근과 6진도 대상에 의해서 없으므로 이 모든 것이 그대로 업보입니다.

그러나 이 업보는 항상 하지 못하고 변하고 허물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있지 못하고 대상에 의해서만이 있을 수 있으며, 스스로 없지 못하고 대상에 의해서만이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업보는 우리들의 분별망념이며, 우리들의 육신으로 한 생각 허망함이 일어나는 것이 生(태어남)이고 한 생각 허망함이 멸하는 것이 死(죽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허망한 업보의 생사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손가락은 스스로 자신을 만지지 못하고 대상을 만지며, 칼은 스스로 자신을 자르지 못하고 대상을 자르며, 태양은 스스로 자신을 밝히지 못하고 대상을 밝히며, 눈은 스스로 자신을 보지 못하고 대상을 봅니다.

대상 또한 스스로 자신이 만져지지 못하고 손가락에 만져지고, 대상은 스스로 자신이 잘려지지 못하고 칼에 의해서 잘려지며, 대상은 스스로 자신이 밝혀지지 못하고 태양에 의해서 밝혀지며, 대상은 스스로 자신이 보이지 못하고 눈에 의해서 보여 집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일체는 이와 같이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고 다만 대상에 의해서 존재하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일체 존재는 스스로 없지 못하고 다만 대상에 의해서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없는 것도 아니다'라는 진실을 먼저 굳게 믿어야 합니다.

영혼의 세계(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 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 광 수 련 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법공양 영가 특별천도재 3,000일기도 입재의 의미와 그 중요성

▶ 현재 지하에 있는 모든 조상영가님들은 살아있는 우리 후손들이 이 기도를 해주기를 무척이나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입재를 해드려야만 하겠습니다. 전화 주시면 안내문과 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읽어 보시고 신청하시도록 하십시오.

▶ 기도비는 저렴합니다. 3,000일 기도하면 거의 10년이 되는데 총액이 3백만원이면 됩니다. 본회에서 3,000일 기도를 해드리며 100일마다 기도비만 10만원씩 보내주시면 되는 법공양 영가 특별천도재로서 3,000일 기도를 하면 천도가 완벽하게 되며, 천도기도 효과가 최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상담문의 및 책 자 신 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